嵌한 例는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奧平武彦 淺川伯教에 依하여 그 窯址(註二)가 알려진 바있고 筆者도 一九六〇年 五月 廣州郡 上樊川里의 窯址에서 이러한 白磁象嵌破片을 採集한 바 있었다。대개 이들 李朝白磁象嵌 그릇들은 器形이 明風을 닮은것이 많고 또 釉藥에도 釉裂이 세밀하고 부드러운 感覺의 高麗白磁流와 釉裂이 없는 李朝初期白磁系의 두 系流가 있는것이 注意된다고 할 수 있다。

盞口徑 一〇·二cm 高 五·四cm 잔대徑 一六cm 高 四·四cm

註

① 奧平武彦 陶器講座(東京雁山閣)收錄「李朝」五〇面에 慶州上樊川里에 窯地있다고 報告하고 있다。

② 淺川伯教 陶器全集(東京平凡社)一七卷 三面에 廣州 樊川里것을 例示하고 忠淸 慶尙兩道의 큰 窯地에서도 破片을 볼수 있다고 했다。

延嘉七年銘 金銅如來像 銘文

金 元 龍

慶南宜寧에서 一九六三年 七月에 發見되어 國寶 一一九號로 指定된 延嘉七年銘佛은 年代가 確實한 韓國佛像으로서 現在까지 알려진것中 가장 오랜 것이라고 생각된다。

銘文은 佛像光背에 四行四十七字의 略體를 섞은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으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延嘉七年歲在己未高麗国樂良
東寺主敬弟子僧演師徒卅人共
造賢劫千佛流布第二九回現歲
佛比丘揔穎所供養

이 銘文中에서 問題가되는 것은 東寺主敬、弟子僧演、第二九回現歲佛比丘揔穎 等의 文句인데 東寺主敬은 樂浪東寺住持인 敬、弟子僧演은 弟子僧인 演、第二九回現歲佛은 二九番째로 今年에 만들어진 佛의 뜻일것이고 比丘揔穎의 揔字는 擣의 略體일것이고 穎은 벼이삭이니까 擣穗의 뜻이 되며 벼이삭을 두들겨 落穀、脫穀시키는 農夫의 뜻이 될것이다。또 賢劫千佛은 現在의 大劫에 나타나는 千佛의 뜻으로 賢劫은 梵語로 Bhadra-kalpa이며 過去인 莊嚴劫、未來인 星宿劫에 對해 現在인 劫을 말한다。劫이란 佛道에서 말하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時期다。

結局 이 銘文을 번역하면 大略 다음처럼 될 것이다。

「延嘉七年 己未歲에 高句麗國平壤東寺의 住持 敬과 그 弟子僧인 演等 師弟四十人이 힘을 合해 賢劫의 千佛을 만들어 世上에 流布키로 하였는바 今年에 만든 이 第二九번째의 佛像은 比丘 擣穎이 出費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延嘉는 高句麗의 逸年號가 分明한데 그 七年己未는 西紀五三九年(安原王九年)이라고 보아야 할것 같다。이보다 한바퀴 앞선 四七九年은 樣式的으로 너무 빠르고 한바퀴 늦은 五九九年은 이러한 佛像으로서는 너무 늦은 感이 있다。

그리고 여기 千佛이라고 하고 있지만 반드시 千佛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몇해에 걸쳐 多數의 小銅佛을 만들어낸 모양이다。

高麗梵鐘의 新例 (五)(註)

黃 壽 永

近年에 出土되어 民間에 入手되어있던 小鐘 三例를 今月 初旬 調査할 수 있었기에 간략하게 紹介하여 둔다。모두 埋藏物로서 寺址에서의 發見品으로 짐작될 뿐이다。

(17) 戊辰銘 靑銅小鐘

通型의 小鐘으로 甬筒(頂上에 四珠)과 龍鈕를 鐘頂에 갖고 있다。